

## ‘백골신문고’를 소개합니다

‘상언격쟁(上言擊錚)’은 조선시대 백성이 왕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제도였다. ‘상언(上言)’은 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것인데, 당사자가 규정에 맞게 문서를 작성해야 했기에 문자에 익숙지 못한 백성에게는 어려움이 많았다.

‘격쟁(擊錚)’은 왕의 외부 행차 때 백성이 징이나 팽과리를 쳐서 자신의 사연을 고하는 것으로 글을 모르는 백성에게 실질적인 방법이 됐다. 하지만 왕의 행차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우선 곤장을 맞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안타까운 기록이 있다.

우리 3보병사단 감찰부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로 내부공익·고충신고센터인 ‘백골신문고’를 24시간 운영 중이다. 장병들에게 적극 홍보한 노력의 결과로 많은 문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단순 규정 문의에서부터 병영생활 간 각종 애로·건의 사항까지 접수해 내용에 따라 즉각 조치 중이다.

특히 소통창구가 모호했던 기존 간



장현태 소령  
육군3보병사단 감찰부

SNS 채널서 24시간 운영  
단순 규정서 건의사항까지  
군인가족 애로사항도 청취  
친숙한 소통창구로 사랑받아

부속소에 거주하는 군인가족의 애로사항도 수렴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부대에서 전출 간 인원도 신문고에 궁금한 규정을 물어보는 등 친숙하고 어려움 없는 소통채널로 운영되고 있다.

기억에 남는 내용 중 입대할 지 얼마 되지 않은 병사가 출산 예정인 배우자의 건강문제로 청원휴가와 출산 관련 규정을 묻은 적이 있었다. 소속 부대가 큰 훈련을 앞뒀던 최근 전입 온 본인의

입장에서는 직접 문의하기 다소 난감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감찰부에서 SNS를 통해 관련 규정을 안내해줬다. 또 배우자 출산 전(前) 지휘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해 적절하게 조치받을 수 있도록 조연했다. 이 병사는 소속 부대 조치로 군 복무를 차질 없이 이어가 뿌듯했다.

백골신문고 활성화 요인은 스마트폰과 SNS 사용이 익숙한 장병들의 특성에 부합된 홍보자료 제작, 전입 간부(군무원 포함) 및 신병 대상 주기적인 안내 교육이 단단히 한몫했다. 이를 통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고충을 해소하는 유익한 수단으로 정착됐다고 자부한다.

무엇보다 사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신뢰감을 형성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앞으로도 3사단 감찰부는 백골신문고를 운영하면서 상언격쟁과 같은 어려움은 없는지 매번 살피며 ‘정심정도(正心正道)’의 감찰훈(監察訓)을 구현하겠다.



정명현 일병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기적대대

## 뜨거웠던 여름 추억 ‘유격자신’

유격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앉으니 조금씩 실감이 났지만, 나는 창가를 바라보며 ‘물 좋고 공기 좋은 산속에서 캠핑이나 하고 오자’라는 생각에 태평하기 그지 없었다. 맹호유격장이라는 간판을 통과해 훈련장에 도착해서도 온갖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

훈련에 대한 진정성은 전혀 없었지만, 나름 체력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평소 일일 체력단련을 빠짐없이 해온 나로서 유격훈련이 그렇게 어려울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첫날, 유격체조가 시작되면서부터 자신감은 무너져 내렸다. 14번까지 있는 유격체조 동작을 이름과 함께 모두 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번호는 절대 외치면 안 되는 집중력도 필요했다. 잘나의 집중력으로 동작을 따라 해야 했다.

특히 그날은 계속된 비로 바닥이 물에 잠겼다. 체조가 계속될수록 물웅덩이가 깊어졌다. 그때 공포의 8번 체조가 다가왔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는 교관의 호루라기 소리에 두 눈을 질끈 감고 물에 푹 빠져버렸다. 온몸이 젖는 짜릿함에 몸서리치던 순간, 교관이 소리쳤다. “지금부터 애국가를 제창한다!” “애국가 시작! 하나, 둘, 삼, 넷!”

가장 힘든 동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애국가를 부르니 고통이 사라졌다. 애국가를 함께 부르고 있는 전우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정말 군인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8번 체조를 마치고 일어난 우리에게 교관은 “모두 뒤로 돌아”라고 하더니,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국가’라는 존재는 바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양 어깨가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올려다본 하늘은 평생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애국심’이 어떤 것인지 느꼈고, 유격장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나의 안일했던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힘들었던 유격체조가 끝나니 각종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 남들은 쉽게 통과하는 ‘두 줄 다리’에서 한계에 봉착했다.

모두가 날 바라보고 있다는 압박감, 아찔한 높이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다. 다리가 벌벌 떨리던 그때 포대원들이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우들의 외침에 나는 어떻게든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고소공포증을 극복했다. 누군가 내게 유격훈련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또 극복할 기회를 주는 훈련’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얻으며 전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훈련’이라 답하고 싶다.

훈련이 무사히 끝날 때까지 함께 의지하고 이겨낸 전우들과 간부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사를 전한다.

## 안전한 체험 ‘2023 지상군페스티벌’

‘2023 지상군페스티벌’이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계룡대 비상활주로 일대에서 열린다.

육군이 주최하는 지상군페스티벌은 온 가족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전군 최대 규모의 축제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찾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만큼 더 많은 국민이 행사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기획단은 국민이 육군과 멋진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휴먼지를 일으키며 기동하는 장갑차와 소형 전술차량을 탑승해 볼 수 있다. 각종 줄타기, 모형탑(막타워), 단정 도하 등 병영훈련 체험과 서바이벌 모의전투,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 체계(마일즈) 사격, 드론봇 전투체험 등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는 육군의 현재·미래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전시·시범 위주의 관람형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다 보니



박여신 대위  
지상군페스티벌 행사기획단

그 어느 해보다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최근 대규모 행사 간 현장감 없는 행정적 안전 조치가 불러온 대형 참사는 국민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안전관리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지상군페스티벌 행사기획단은 ‘안전한’ 지상군페스티벌 개최를 지향하며 안전관리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기획단원 모두는 “설마” 하는 작은 방심은 위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는 곧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져 대형 사고를 부르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에 하나라도 위험요소가 식별되면 간과하지 말고 과감하게 조치” 하자고 다짐했다.

우리 시설팀은 안전 분야 최고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2회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해 위험요소 식별·조치했다.

아울러 행사 시작 전 시설물 운용부대와 전투준비안전단이 최종적으로 안전을 검증하는 3중 확인 시스템도 구축했다. 행사 전·중·후 상황별 안전 메뉴얼을 제작·활용함은 물론 타 축제와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단 한 건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육군의 사명이기에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전군 최대 행사에 안전 분야 실무장교로 참여해 책임이 막중하지만, 나와 우리 기획단의 세심한 준비로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가족·연인·친구와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긍지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즐거움과 안전이 확보된 ‘2023 지상군페스티벌’의 성공 개최로 관람객들이 맘껏 즐기면서 환희로 가득할 그날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 알림

응모 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카툰, 사진, 그림, 캘리그래피  
분량·크기: 자유 (산문·시·독후감·편지는 공백 포함 1700자 이내)  
응모 대상: 국군장병, 국방가족, 일반독자  
응모 방법: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 양식 이용해 이메일(장병은 부대 정훈 계통 문의)로 제출  
기타: ‘병영의 창’에 게재될 분에게는 매월 말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치킨 세트 기프트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자가 스팸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이메일: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letter@mnd.mil  
문의: 군 전화 947-3718, 일반전화 02-2079-3718